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한 병렬자료에 나타난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번역



201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장 은 희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한 병렬자료에 나타난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번역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장 은 희

장은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26일



주 심 영어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언어학박사 박 순 혁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차

Abstract	ii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부정문	4
2.2 화행론	6
2.3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8
III.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변환	11
3.1 반의어	12
3.2 유의어	23
3.2.1 문장형태변화	23
3.2.2 구문변화	28
3.2.2.1 명료화로 인한 번역	28
3.2.2.2 관계절 구문	29
3.2.2.3 접속 구문	31
3.2.2.4 부사와 조동사 구문	32
3.2.2.5 이중부정	34
3.2.2.6 기타(의문문)	36
3.3 부연설명	39
IV. 결론	41

영한병렬자료	44
참고문헌	45



Translation of English Affirmative sentences
into Korean Negative Sentences.

Eun Hee Ja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ue to the intertwined nature of culture and language, we must take care when translating culture-specific discourse, as a culturally intertwined concept in one language may not have a direct equivalent within the target language. As a result of this reality in translating culture-specific concepts, there are certain methods for how to translate. For example, it is often found that English affirmative sentences are translated into Korean negative sentences. For instance, In English, the verb "remember" becomes "not forget" when translated into Korea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why affirmative-sentences in English are translated into negative-sentences in Korean and how they are expressed. In addition, methods in negating affirmative sentences

when translating from English to Korean will be investigated with a focus on the work of Ikegami(1991) and Talmy(2003). Our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shows 141 cases of negations, which may be expressed in a number of ways.

Firstly, positive sentences are translated as negative sentences by using "antonymy" which expresses the emphasis and ambiguousness of the original English text, such as the aforementioned example of "remember" becoming "not remember". Secondly, they are translated by using "synonymy" which adds a negative,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 euphemism, become-language, speech acts and emphasis. Thirdly, in "additional explanation", negative sentences are added in order to clearly express the original English text.



I. 서론

번역은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장의 내용을 다른 나라말로 옮기는 작업으로써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쓰인 언어를 원천언어(source language)라 하고 번역된 텍스트에 쓰인 언어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라 한다. 즉 번역은 원천텍스트를 목표텍스트로 바꾸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원본의 의미가 번역물에서도 보존된다. 번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등가(equivalence)의 개념이다. 원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나 의도를 번역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등가의 개념이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등가의 개념이 과거에는 형식에 맞춰져 있었다면 점차 내용이나 메시지, 효과, 정보, 기능으로 옮겨가면서 번역텍스트가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근희 2008: 4). 또한 원천언어의 문화권과 목표언어의 문화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언어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문화권의 차이를 인식하고 원천텍스트의 의미와 의도를 반영하여 그에 알맞은 번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천텍스트의 변환이 수반된다. 차용, 직역, 치환, 변조, 번안 등 여러 변환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변조의 한 방법인 원천텍스트의 긍정문이 목표텍스트에서는 부정문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a. "I am sure they **are waiting** for you, sir." David replied.
(Andrews, A. The traveler's gift. 2008: 239)
b. "그래도 각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강주현(역).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2008: 238)
- (2) a. Constable Brissard will **remember** forever the expressions on

the worried parent's faces transformed into total relief and joy. (Read's Digest 101집. 2009: 56)

- b. 걱정으로 가득했던 부모의 얼굴 표정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던 모습을 브리사드는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Read's Digest 101집. 2009: 57)

위 예문 모두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번역된 문장으로써 (1b)는 원문의 동사 "are waiting"이 "기다리고 있다"로 그대로 번역된 상태에서 부정서술어 "아니 하다(않다)"를 포함하여 부정문이 된 경우이고, (2b)는 원문의 동사 "remember"이 "기억하다"로 해석이 되지 않고 그의 반의어인 "잊다"로 번역되고 이에 부정서술어 "못하다"가 포함되어 원천언어에 쓰인 긍정표현이 목표언어에서는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은 원천텍스트의 변환이 수반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의 예문 모두 "~기다리고 있다", "~영영 기억할 것이다"처럼 원문과 같이 긍정문으로 번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소를 포함하여 부정문으로 번역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 혹은 형식으로 부정을 표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영어의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현상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영한 병렬자료에서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문장들을 찾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영한 병렬자료(parallel corpus)는 "Reader's Digest 101집(2009)"-(이하 "RD 101집"으로 약함), "The Road(McCarthy, C. 2006)"-(이하 "Road"로 약함)과 그 번역본 "로드(정영목(역) 2008)"-(이하 "로드"로 약함) 그리고 "The Traveler's

Gift(Andrews, A. 2008)"-(이하 "Gift"로 약함)과 그 번역본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강주현(역) 2008)"-(이하 "하루"로 약함)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문장들을 분석하여 종류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부정문의 정의와 화행론, 그리고 두 언어권의 언어표현의 차이에 관해서 보도록 하고자 한다.

2.1 부정문

부정문(negative sentence)이란 일반적으로 부정소가 쓰여서 서술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문장이다(서정수 1994). 따라서 부정문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긍정문에 "부정어"가 통합되어 산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정곤(1997)에서는 부정어를 "어휘적 부정어"와 "통사적 부정어"로 구분했는데 전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한자어 "부정접사"인 "무(無), 미(未), 불(不), 비(非)"등이 명사와 통합되어 문장 전체의 의미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 a. 그는 **무보수**로 일했다.
- b. 그 사건은 아직 **미결**상태이다.
- c. 그녀는 시험에 **불합격**했다.
- d. 그의 인터뷰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3a)~(3d)는 부정접사가 포함된 문장으로서 모두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 문장들을 다시 서술부정어로 만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 (4) a. 그는 **보수 없이** 일했다.

- b. 그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 c. 그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 d. 그의 인터뷰는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이처럼 (3a)~(3b)와 서술부정어로 나타낸 (4a)~(4b)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부정접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부정문을 생성하는 경우도 부정사나 부정서술어가 포함된 문장과 같이 부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부정을 나타내지만 부정소의 포함여부가 확실치 않고 부정문의 통사적인 정의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통사적 기준에 의해 부정어와 부정서술어가 포함된 문장만을 부정문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통사적 부정문"이란 부정어 "아니"나 "못" 혹은 부정서술어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없다"와 같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일컫는다.¹⁾ 부정문의 의미에 따라 크게 "안"부정문, "못"부정문 그리고 "말다"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안"부정문은 부정어 "아니"나 부정서술어 "아니하다"를 통해 긍정문을 부정하는 문장이며, 자신의 의도나 의지에 결정지을 수 있는 경우에 즉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을 나타낸다(남기심, 고영근 1993: 366). "못"부정문은 부정어 "못"이나 부정서술어 "못하다"를 통해 부정하는 문장으로써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발생되거나 결정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능력부정"이나 "불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주로 외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그 애는 노래를 안 부른다"는 "안"부정문이 사용되면서 단순

1) 사실 부정문에 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까지를 부정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견해가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시정곤(1997:54)에서 제기한 "통사적 부정"을 기반으로 하여 부정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시정곤(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부정"과 "그 애는 할 마음이 없어서 노래를 안 부른다"는 "의도부정"이 있다. 반면에 "그 애는 노래를 못 부른다"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변상황에 의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서정수 1994: 855).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사용되고 "말다"부정문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경우 사용되면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정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부정극어인데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란 의미적 성격상 부정문과 공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련의 부사어로서 주로 부정소하고만 어울려서 부정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극대화 시키는 데 사용된다(서정수 1994).²⁾ 예를 들면 절대, 결코, 전혀, 별로 등이 있으며 이는 부정문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화행론(speech act theory)

본 연구에서는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된 경우를 살펴보는 데 표면적으로 부정문은 긍정문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의 전제조건인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등가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부정문은 반드시 부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a. 왜 안가니?

2) 부정극어가 부정문 뿐 아니라 긍정문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약속은 절대 지켜야 돼", "나는 결코 그 일을 해 내고야 말거야" 등이 있는데 부정극어라고 불리는 어휘들이 긍정문에 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들의 부정극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정극어라 분류한다(구종남 2003).

b.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니?

c. 가라. (서정수 1994: 878)

(5a)와 (5b)는 부정사 “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를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임이 확실하나 (5c)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긍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문이 부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상 부정문임이 틀림없으나 문장의 의미가 부정이 아닌 경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장 자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있는 메시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즉 화자와 청자의 의도와 발화상황, 문맥 전체의 내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발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쓰인 언어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발화차원에서 문장을 해석하는 관점을 화행론(speech act theory)이라 일컫는다.

화행론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즉 발화를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Austin(1962)에 의하면 화행을 행하는 모든 발화문은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성된다. 발화행위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소리와 단어를 생성하여 문장의 의의와 지시를 결정하는 행위이고 발화수반행위는 말함으로써 진술, 명령, 질문, 약속, 경고등의 의사소통력(communicative force)을 갖고 있는 행위이다. 발화효과행위는 발화함으로써 화자가 청자를 결국 설득하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등의 실제적 효과를 갖는 발화영향 행위이다. 발화행위가 발화수반 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질 때는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이라 하며,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때는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이라 한다. 예를 들면 평서문

은 단언하는 의사소통기능과 의문문은 질문하는 의사소통기능 그리고 명령문은 명령과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처럼 발화문의 구조와 기능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직접화행이라 하고 반면에 간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는 간접화행이라 한다.

앞의 예문을 들어 설명해보면 “왜 안 가니?”는 의문문으로서 의문문의 주요기능인 질문의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면서 청자에게 “가라”는 의미를 지닌 요청이나 명령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화행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이 부정문이나 문장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부정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문장의 의미는 담화의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발화적 차원에서 해석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표현 방식 차이에서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2.3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Ikegami(1991)에 의하면 영어를 “Do-language”로 일본어를 “Become-language”로 나누면서 영어는 행위자(agent)로써 행동(what he dose)에 중점을 두고 주어를 의무적인 문장구성요소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일본어는 행위자보다는 전체적인 상황표사에 중점을 두면서 만일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행위자를 감추거나 혹은 환경에 동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동일하게 “Become-language”로 분류된다. 따라서 동일한 문장이라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원천텍스트를 목표텍스트로 번역할 때 변조가 가능하다. 또한 Talmy(2001)과 이영옥(2004)에 따르면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영어를 명사지향언어 또는 객체지배언어(object-dominant language)라고도 하며 이에 반해 한국어는 주어의 명시보다는 상황묘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종결어미를 동반한 서술어로 문장이 종결되는 특성 때문에 행동지배언어(action-dominant languag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는 이러한 명사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시 한국어에는 그에 일치하는 대응표현을 찾기가 힘들고 따라서 품사 변화 혹은 언어 유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서양문화를 “하다”의 문화로, 동양문화를 “되다”의 문화로 규정하면서 한국어의 특징을 피동형 또는 완곡 표현법이 발달한 것이라고 한다. 즉, 현대 한국어는 직설적,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피동적으로, 완곡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완곡 표현이란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듣기 좋게 바꿔 표현하는 것이며 수사법 범주에서는 “완곡어법(euphemism)”이라 한다. 예를 들면, 죽음을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die” 보다는 “pass away”로 사용되고 한국어에서도 “죽다” 대신에 “돌아가다” 혹은 “눈을 감다” 등의 완곡 표현으로 사용된다.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틀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등등 상대방 반응을 십분 고려하여 그 반작용을 미리 무마시켜놓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이용해 2006). 즉 서양에서는 좀 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면, 동양에서는 피동적 혹은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더 발달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성향과 서로 다른 언어 표현차이 때문에 의사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전달 행위나 발화행위 표현방법이 각 언어에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부정문의 정의를 통사적 기준에 의해 부정어와 부정서술

어가 포함된 문장만을 부정문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서양문화와 피동적 혹은 완곡적 표현이 주를 이루는 동양문화의 차이로 인해 언어 표현의 사용이 달라지며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담화의 상황이나 발화적 성격에 따라 문장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문장들을 분석해보고 그 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변환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된 문장들을 살펴본 결과 세 개의 분석텍스트에서 총 141개 문장을 발견했다.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6) a. My God has bestowed upon me many gifts, and for these I will **remember** to be grateful. (Gift, p.211)
b. 하느님은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나는 그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루, p.210)
- (7) a. Can we **wait** a while? (Road, p.204)
b. 좀 기다리면 **안**돼요? (로드, p.232)
- (8) a. He said that everything depended on reaching the coast. (Road, p.29)
b. 남자는 모든 것이 해안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로드, p.36)

(6b)는 동사 "기억하다"가 반의어인 "잊다"에 부정어 "못"이 결합되어 부정문이 된 경우고 (7b)는 "좀 기다려도 돼요?"로 해석하는 대신 부정어 "안"이 결합되었다. (8b)에서 "못하느냐"는 원문에 없는 말이 생겨난 경우로써 부정어 "못"으로 인해 부정문으로 분류가 된 경우이다.

분석결과 위의 예문들처럼 그 중 반의어로 된 문장이 67문장, 유의어로 된 문장이 49문장, 그리고 부연설명 된 문장이 25문장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1]은 그 분석 결과로 먼저 반의어를 사용하여 이를 부정한 문장들을 살펴보자.

[표 1]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유형과 빈도

유형	반의어	유의어	부연설명	합계
빈도	67개(47.5%)	49개(34.8%)	25개(17.7%)	141개(100%)

3.1 반의어

일반적으로 “반의어”(antonymy)를 “반의관계”를 이루는 어휘라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반의어란 어휘항목사이의 의미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의미론상의 용어중 하나로써 동의어(synonymy)와는 반대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high/low, tall/short, big/little, alive/dead, give/receive, push/pull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원문 어휘의 반의어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형성한 경우를 살펴 볼 것이다.

반의어를 사용하여 부정한 경우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여 빈도수가 많은 품사에 따라서 살펴보면 총 67개의 문장 중에서 형용사의 반의어를 사용하여 부정한 경우가 30개(44.8%), 동사는 26개(38.8%), 부사는 8개(11.9%), 전치사는 3개(4.5%)로 나타났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영어는 명사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법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에는 다양한 종결어미로 끝나는 서술에 중점을 두는 상황 중심적 성격으로서 서로 일치하는 대응표현을 찾기가 힘들고 따라서 품사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품사대로 번역시에도 동일한 품사로 번역이 되는지 형용사부터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A. 형용사

총 30개(100%)의 형용사 중에서 높은 빈도수로 나열하자면 동사로 번

역된 경우가 16개(53.3%), 명사로 번역된 경우는 11개(36.7%), 그리고 형용사가 형용사로 동일시 번역된 경우는 3개(10%)로 나타났다. 먼저 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 형용사-동사

총 30개의 형용사 중에서 16개(53.3%)가 동사로 번역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9) a. They ate their poor meal **cold** and lay down in their bedding with the lamp between them. (Road, p.10)

b. 그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데우지도 못하고** 먹은 뒤에 등을 가운데 두고 침대에 누웠다. (로드, p.14)

(10) a. The story he told, though it had happened more than a century earlier, was *absolutely* **accurate** in its detail. (Gift, p. 343)

b. 벌써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그의 이야기는 세세한 부분에서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 (하루, p.342)

(11) a. David's mouth was **open**, and a look of confusion and faint astonishment was written in his eyes. (Gift, p.255)

b. 데이비드는 어리둥절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황하고 놀란 기색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다. (하루, p.254)

(9b)는 "그들은 그들의 차가운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로 해석되지 않고 형용사 cold가 차가운 상태와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 "데우다"에

부정서술어 "못"이 포함되어 "데우지도 못하다"로 해석되었다. "못"이 포함됨으로써 주위환경 때문에 "데울 수 없었음"을 나타내며 동사로 품사가 변화하면서 Ikegami(1991)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구체적인 상황묘사에 따른 중점을 둔 번역이라 볼 수 있겠다. (10b)는 형용사 accurate가 동사 "틀리다"에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않다)"가 결합되어 부정문이 되었다. 이 예문에서는 부정극어 "한 치도"가 사용되었는데 "한 치도"는 "하나"의 의미가 최소의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소 수량사 "하나"에 한정조사 "도"가 연결되어 부정극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원문의 부사absolutely가 "한 치도"로 해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1a)를 직역하자면 "데이비드의 입은 열려있었다"로 해석되어야하는데 이 문맥에서 이 문장은 어색하기 때문에 주어 David's mouth가 사람 David로 번역되면서 mouth는 목적어가 되고 형용사 open은 반대 의미를 지닌 동사 "다물다"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어 "못"이 결합하여 부정문이 되었다. 영어에서는 사물도 문장의 주어로 잘 위치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주로 사람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번역시 그에 따른 품사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문장에서 나타난 주어변경 또한 번역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써 이는 각 언어마다 대응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명사로 품사가 바뀐 경우를 살펴보자.

2. 형용사-명사

총 30개(100%) 문장 중에서 11개(36.7%)가 명사로 번역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2) a. "This is 4618. Lost child found. Trainman Peever had to jump out and grab her. She's got a bump on the head and a small cut behind her ear that might require some stitches, but she'll be **all right**." (RD 101집, p.56)
- b. "여기는 제4618호 기관차, 실종된 아이를 찾았다. 철도원 피버가 뛰어내려 아이를 구했다. 아이는 머리에 혹이 생기고 귀 뒤 쪽이 조금 찢어져 몇 바늘 꿰매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별 **문제**는 **없다**." (RD 101집, p.57)
- (13) a. This is **crazy**, David thought. I'm having a dream in the middle of a dream. I have to wake up! (Gift, p.271)
- b.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야. 잠에게 깨야만 해!'라고 생각했다. (하루, p.270)
- (14) a. you're talking **crazy**. (Road, p.56)
- b.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로드, p.66)

(12b)는 형용사인 all right가 번역시 명사 “문제”로 해석이 되면서 이를 부정하는 “없다”가 포함되어 부정문이 된 경우다. 원문의 긍정형 그대로 “그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긍정문으로 해석하는 대신 부정문으로 해석함으로서 아이가 어느 정도 경미하게 다치긴 했지만 특별히 심하게 다친 곳은 없고 그 외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괜찮다”와 “문제없다”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반의어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부정함으로써 의미상 모호함을 나타내며 긍정과 부정의 의미상 중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윤평현 2008).

이와 같이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반의어를 등급반의어(gradable antonymy)라 하고 이는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gradability)이 있다고 한다(Murphy 2003).³⁾ 예를 들면 cold와 hot 사이에는 cool 또는 warm과 같은 중간 상태(average)가 있으며 따라서 한 쪽을 부정하는 것이 다른 한 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big/little, good/bad, old/young, high/low, tall/short, love/hate, good/bad 등이 있다.

(13)과 (14)에서는 형용사 crazy의 의미대로 번역물에서 “말도 안되는, 정상이 아닌”으로 해석되었는데 통사적으로 부정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분류를 하였으나 그 의미가 부정문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원문의 형용사가 번역시 동사로 품사가 바뀐 경우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형용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 형용사-형용사

총 29개 중에서 3개(10.3%)가 형용사 품사 그대로 번역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15) a. “Is Jenny mad at me?”

...

“No, honey. Jenny is **fine**.” (Gift, p.15)

b. “제니가 나한테 화났을까?”

...

“여보, 제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 p.14)

3) 등급반의어(gradable antonymy)외에는 반의어의 유형에는 상보반의어(complementary antonymy)와 방향반의어(directional antonymy)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Murphy(2003)를 참조바람.

(15b)는 형용사 fine이 번역시 형용사 “아무렇다”로 해석되고 여기서 부정사 “않다”가 결합하여 부정문이 되었는데 이 예문 또한 (12b)와 같이 모호함을 나타내기 위해 반의어를 사용하여 부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형용사가 번역시 어떤 품사로 변환되어 부정문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원문의 동사가 번역시 어떤 품사로 변환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B. 동사

총 26개(100%)의 문장 중에서 26개 문장 모두 동사가 동사 그대로 품사 변화 없이 번역되었는데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16) a. Constable brissard will **remember** forever the expressions on the worried parent's faces transformed into total relief and joy. (RD 101집, p.56)

b. 걱정으로 가득했던 부모의 얼굴 표정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던 모습을 브리사드는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RD 101집, p.57)

(17) a. The boy tried to hand him the pistol but he wouldn't take it. You **hold** onto that, he said. (Road, p.285)

b. 소년은 남자에게 권총을 주려고 했으나 남자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건 절대 놓지 마라. (로드, p.322)

(18) a. Dr. Judah Folkman first put forth the theory in 1971 that cancer tumors cannot grow without a blood

supply. ..., Many scoffed at his ideas, ...and by the mid-1980s his team of researchers helped demonstrate his basic premise. How did he **maintain** his resolve? Folkman says that early on, many scientists thought he should quit, (RD 101집, p.94)

- b. 주다 포크먼 박사는 악성 종양도 혈액의 공급원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는 이론을 1971년에 처음 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비웃었다. ... 1980년대 중반쯤에는 그가 이끄는 연구팀이 그의 기본적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어떻게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가 주장을 철회할 거라고 생각했다. (RD 101집, p.95)

동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가 (16)의 remember로써 “기억하다”의 반의어인 “잊다”와 부정서술어 “못하다”가 사용되어 “잊지 못하다”로 해석되었다. 긍정문으로 해석해 보면 “~ 브리사드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반면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못”을 사용하여 “잊는 것을 못하다” 즉 내 의지대로 잊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어휘는 (17)의 hold로써 “잡다”로 해석하는 대신 그의 반대 의미를 지닌 “놓다”와 부정서술어 “말다”가 결합하여 부정문이 되었다. 이 문장에서 that은 총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총을 지니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극어 “절대”의 사용과 함께 부정명령문으로 번역되

었다. 부정명령문으로 번역되면서 청자의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화자의 발화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정극어 “절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혹은 어김없이 무조건/반드시 + 부정요소”의 형태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을 극대화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 예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놓아선 안 됨”을 나타냈다. (18b)는 동사 maintain (주장을) “유지하다, 지속하다”의 반대 의미를 지닌 “끊이다”와 부정서술어 “않다”가 결합하여 부정문을 나타냈다. (18b)를 “그는 어떻게 자기주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유지하다”가 “끊이지 않다”로 해석되었는데 부정어 “안”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비웃었음에도 자신 소신껏 주장을 밀고 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원문의 품사 부사가 번역시 어떤 품사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C. 부사

총 8(100%)개의 부사 중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뀐 문장이 5개(62.5%)문장, 형용사가 2개(25.0%)문장 그리고 명사 1개(12.5%)문장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사 동사로 품사가 바뀐 경우를 살펴보자.

1. 부사-동사

이 절에서는 부사가 동사로 품사가 전환되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9) a. keep your face **down**. (Road, p.91)

- b. 머리 들지 마. (로드, p.106)
- (20) a. Stay **close**. (Road, p.265)
- b. 떨어지지 마. (로드, p.277)

(19b)는 부사인 down이 동사 “들다”로 번역되고 여기에 부정사 “말다(마)”가 포함되어 부정문이 되었고 (20b)는 부사 close가 반대 의미를 지닌 동사 “떨어지다”로 해석되면서 부정사 “말다”가 포함되어 부정문이 되었다. 두 예문 모두 긍정명령문에서 부정명령문으로 번역되면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형용사로 품사가 바뀐 경우를 살펴보자.

2. 부사-형용사

8개 문장 중에서 형용사로 번역된 문장은 2문장으로서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1) a. People **often** asked if they were brother and sister. (Gift, p.13)
- 그들에게 오누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루, p.12)
- (22) a. " ... **More than a few times**, men have fought because a king or president or someone told them to fight." (Gift, p.119)
- b. " ... 또 왕이나 대통령 등 누군가의 명령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p.118)

두 예문 모두 빈번함을 나타내는 부사, 부사구로써 (21b)는 부사 often이

“~경우가 종종 있었다”로 해석하는 대신에 “적다”로 해석되면서 부정서술어 “아니 하다(않다)”가 결합한 경우이고 (22b)는 부사구 more than a few times가 “~경우가 많다”로 번역되는 대신에 반의어 “적다”에 부정서술어 “아니 하다(않다)”가 포함되면서 부정문이 된 경우이다. 두 예문 모두 확실히 “많다-적다”로 표현하기 보다는 적은 것도 아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 확실하지 않은 표현으로 모호함을 나타냈다. 즉 위의 예문들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은 아니다”의 “많다”와 “적다”의 중간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부사가 명사로 품사가 바뀐 경우를 살펴보자.

3. 부사-명사

부사가 명사로 번역된 문장은 1문장으로서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3) a. They ate **well** but they were still a long way from the coast. (Road, p.213)
 b. 먹는 것은 **별 문제** ~~없~~었지만 해변은 아직도 멀었다. (로드, p.242)

동사 ate이 번역문에서는 주어가 되고 부사 well이 명사로 바뀌면서 well의 반대 의미를 지닌 명사 “문제”에 부정어 “없다”가 포함되어 부정문이 되었다. 이 예문에서도 확실히 “잘 먹었다”로 해석되지 않고 “별 문제 없었다”로 번역되면서 먹긴 먹었지만 “잘 먹었다”로 표현할 만큼 먹지는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원문의 전치사가 번역시 어떤 품사로 변환되었는지 살펴보자.

D. 전치사

3개의 전치사 모두 동사로 번역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4) a. **Within** a year there were fires on the ridges and deranged chanting. (Road, p.32)

b. 일 년이 지나지 않아 산마루에 불이 붙었으며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성가를 읊조렸다. (로드, p.40)

(25) a. I will walk **with** ... **a smile** on my face. (Gift, p.141)

b. 걸음을 땔 때마다 ... 얼굴엔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루, p.140)

(24b)는 전치사 within이 “~이내에, 일 년 안에”로 해석되는 대신 반대 의미를 지닌 “지나다”에 부정서술어 “않다”가 결합하여 부정문을 만든 경우이고 (25b)는 전치사구 with a smile에서 with가 동사로 해석되면서 “미소를 짓다, 가지다”의 반의어인 “미소를 잃다”에 부정서술어 “않다”를 결합시킨 경우이다.

지금까지 반의어가 사용된 부정문을 살펴보았는데 이 경우는 반의어를 다시 부정했기 때문에 비록 문장 형태가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긴 했으나 원문의 긍정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긍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정문으로 번역한 이유는 원문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도 있고 또는 의미의 중간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즉 모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의어의 부정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절에서는 유의어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만든 경우를 살펴보자.

3.2 유의어

앞 절에서는 원문에 사용된 어휘의 반의어를 부정어와 사용하여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원문의 어휘 의미 그대로 번역한 후 부정어를 사용하여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예문을 보자.

(26) a. "..., Does it hurt?" (Gift, p.189)

b. "..., 아프지는 **않**나요?" (하루, p.190)

위의 문장은 본래의 의미에 부정어만 포함시킨 경우로써 “아파요?”에 부정서술어 “않다”를 사용하여 부정문이 된 경우이다. 반의어와는 다르게 유의어로 부정이 된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원문의 내용과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번역의 전제 조건인 등가(equivalence)의 개념이 상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의 예문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유의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부정문을 형성했는지 알아 볼 것이다.

반의어와는 다른 구조적 장치나 형태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총 49개의 유의어 문장 중에서 크게 문장형태가 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14개(28.6%), 후자의 경우는 35개(71.4%)가 나타났다. 먼저 문장유형의 변화와 더불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문장들을 살펴보자.

3.2.1 문장형태변화

언어는 여러 유형의 화용론적 기능(pragmatic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문장은 담화 상에서 여러 가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문장 형식을 통한 내포적 의미의 전달은 번역시 문장형태 변화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세정 2008). 예를 들면 서술형 문장이 명령형이나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된다든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문장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내재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총 49개의 유의어 중에서 문장형태가 바뀐 문장은 총 14개로 그 중에서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변한 문장이 13(92.8%)개, 평서문이 명령문으로 변한 문장은 1(7.2%)개로 나타났다. 먼저 평서문이 명령문으로 바뀐 문장을 보자.

- (27) a. We have ammunition.
Where did you get it?
Found it.
That's a lie. (Road, p.64)
- b. 총알은 있어.
어디서 났어?
찾았어.
거짓말 마. (로드, p.75)

국어의 명령문을 박영준(1994)은 “동사의 종결어미에 의하여 명령, 요청, 간청, 금지 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이행하라고 요구, 요청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명령문은 주로 요청의 의미나 기능을 가지나, 부정 명령문은 부정서술어 ‘말-’이

쓰이는데 이는 금지의 의미를 지닌다. (27b)는 평서문에서 명령문으로 문장 형태가 바뀐 경우로써 허허벌판인 곳에서 총알을 찾았다는 말에 믿을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평서문 “거짓말이야”를 부정명령문 “거짓말 마”로 번역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표현한 경우이다. 그 의미는 긍정 평서문과 동일하나 부정 명령문으로 표현되면서 강한 의미전달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명령문보다 특히 간접화행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의문문인데 간접화행은 직접화행보다 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open the window” 보다는 “could you open the window?”가 “pass the salt” 보다는 “could you pass the salt?”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유의어에서 주로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의 형태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8) a. “Maybe we **should think** about pulling out, sir,” Spear said cautiously. (Gift, p.133)
 b. "철수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스피어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루, p.132)
- (29) a. We can't just leave him here.
 yes, we **can**. (Road, p.285)
 b. 그냥 여기 놔두고 갈 순 없어요.
왜 안 돼? (로드, p.321)

(28b)는 하사관이 직속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발화로서 직위질서가 확실히 잡혀있는 군대에서는 상사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긍정평서문 “우리는 아마도 철수를 생각해야합니다”처럼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

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부정의문문 "~지 않을까요?"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의문문으로 되물음으로써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9b)의 내포된 의미는 "된다"로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의 의미를 가지면서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했다. 위의 예문 모두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문장 형태가 바뀐 경우로써 의문문의 주요역할인 질문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yes/no"의 대답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또한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이나 문장의 내재적인 의미가 부정을 나타낸다고 하기보단 긍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어는 주로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서 한국어는 완곡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한번역시 의문부정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함을 표현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0) a. "Who is he?"

"That is our principal orator at this occasion. ... He can certainly hold an audience in the palm of his hand. Look at the faces of the people."

"**I am sure** they **are waiting** for you, sir," David replied.
(Gift, p.239)

b.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행사의 주된 연사네. ... 청중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능력을 지녔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그래도 각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하루, p.238)

(31) a. "Thank! By the way, **I'm sorry I took up** all your

preparation time here in the tent." (Gift, p.257)

b.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하실 시간을 제가 **뺏은 건 아닌가요**." (하루, p.256)

(32) a. "Gabriel, you also **mentioned** that I lacked faith." (Gift, p.303)

b. "가브리엘천사님, 제게 믿음도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루, p.302)

(30b)와 (31b)는 화자 중심의 완곡 표현으로써 (30a)는 원문에서는 "I'm sure"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확실성을 나타낸 반면 번역문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피력하기 보다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한 경우이다. (31a)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에서 준비하실 시간을 제가 모두 뺏아서 미안합니다"를 한국어로 번역시 부정표현 "아닌가요"를 사용하면서 좀 더 우회적, 완곡적으로 표현했다. 즉 원문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I'm sorry"로 분명히 나타낸 반면, 번역문에서는 "아닌가요"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나타내기보다 숨기는 경향이 있다. (32b)는 청자 중심의 완곡 표현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네가 좀 전에도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언급했음을 상기시키는 의도로써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지시키거나 혹은 동의를 얻기 위함을 내포하고 있다. 긍정문인 "~, 제게 믿음도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로 번역했을 때보다 부정의문문 "~말씀하지 않으셨나요?"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공손하고 좀 더 완곡적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주로 부정의문문을 사용하여 번역을 했는데 의문문은 다른 문장형태들보다 간접화행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한국어

의 특성상 완곡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의문문으로 변조가 나타났다. 다음은 구문변화로 인해 부정문이 된 경우를 살펴보자.

3.2.2 구문변화

이 절에서는 문장형태 변화로 인한 부정문으로의 번역이 아닌 구문에 의해 부정문이 된 경우로서 총 49개의 유의어 문장 중에서 35개(71.4%) 문장이 나타났다. 이는 다시 명료화로 인한 부정문으로의 번역, 관계절 구문, 접속 구문, 부사와 조동사 구문, 이중부정,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명료화로 인해 부정문으로 된 문장부터 살펴보자.

3.2.2.1 명료화로 인한 부정문으로의 번역

2장에서 언급했듯이 영어는 “Do-language”로서 행위자(주어)가 반드시 나타나서 객체 중심표현(인간 주어 중심적 표현)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한국어는 “Become-language”로서 상황중심표현이 주를 이루면서 이에 따라 번역시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3) a. ..., the boy was too tired for reading. (Road, p.10)

b. ..., 소년은 너무 지쳐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로드, p.14)

(34) a. He's afraid to answer. (Road, p.259)

b.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로드, p.293)

(33b)를 원문 그대로 “소년은 책을 읽는데 너무 피곤했다”로 했다면 그 결과 소년이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나중에 읽

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너무 지쳐 그 결과 책을 읽지 못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부정이 사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4b) 또한 "그는 대답하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처럼 긍정문으로 표현했다면 그가 대답하기를 무서워했을 지라도 결국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결국 대답을 못 했는지의 여부를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문 "~해서 못 한다"로 번역되어 그가 결국 대답을 못했음을 나타낸다. 즉 한국어는 전체적인 상황묘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미를 명료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관계절구문에서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2.2.2 관계절 구문 번역

영어는 주명사를 중심에 두고 앞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는 주명사 다음에는 주어나 보어, 목적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격조사가 첨부되어야 함으로 주명사의 뒤에 추가적인 수식어를 첨부할 수 없는 구조로서 주명사의 앞부분에 여러 형태의 수식어를 첨부하거나 이중 주어, 이중 목적어 등으로 동격의 주어나 목적어를 사용해야 한다(이영옥 2004: 149). 이에 관하여 영어의 관계절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시 부정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 (35) a. Stepping though the open space was the most radiant human being David had ever seen. He wore a robe of brilliant turquoise. Rubies and gems of every sort were sewn into the hems and sleeves of the garment. Around his arms and neck were bands of solid gold. The crown on his head, also made of gold, was dusted with small

diamonds.(Gift, p.75)

- b. 온몸이 환히 빛나는 사람이 그 틈새로 걸어 나왔다. 데이비드는 것처럼 몸이 빛나는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 그는 번쩍이는 터키옥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루비와 온갖 종류의 보석이 옷단과 소매에 수놓아져 있었다. 팔과 목에는 순금 띠가 둘러져 있었다. 역시 황금으로 만든 왕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하루, p.74)

(36) a. These will be the best pears you ever tasted, he said.
(Road, p.141)

- b. 네가 평생 맛보지 못한 최고의 배가 나올꺼야. (로드, p.161)

(35a)와 (36a)는 관계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관계절을 이끄는 선행명사 앞에 최상급이 각각 the most와 the best가 수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수식어가 명사의 앞자리에 위치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중 수식구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번역문에서는 이 한 문장이 두 문장으로 나뉘지면서 선행명사 앞까지 한 문장, 관계절 한 문장으로 해석이 되었다. 만일 (35b)를 긍정으로 표현했다면 “그 틈새로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은 데이비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빛이 났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데이비드는 것처럼 몸이 빛나는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로 부정문으로 번역되어 긍정문으로 표현했을 때 보다 더욱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36b)는 “네가 맛본 것 중에서 최고의 배가 나올꺼야”로 해석하는 대신 부정사 “못”을 사용하여 아예 네가 경험하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의미를 가지며 (35b)와 마찬가지로 원문과 비교하여 부정문으로 변조되었지만 부정문이 부정의 역할의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긍정문을 부정

문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발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접속구문에서 나타난 문장이 부정문으로 된 경우를 살펴보자.

3.2.2.3. 접속 구문

통사적, 의미적으로 2절 또는 그 이상이 "and, but" 등의 접속어에 의해 연결된 구문을 접속구문이라 한다. Talmy(2001: 360)는 "and와 but"으로 연결된 문장들은 연결된 두 사건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다고 언급하며 원인(reason), 양보(concession), 시간순서(posteriority), 추가(additionality)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한다. 또한 Blakemore(1987)는 등위접속으로 연결된 문장들은 각각의 독립적 문장들이 가질 수 없는 화용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접속구문은 문맥과 담화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절에서는 등위접속으로 연결된 두 사건 사이에 상반되는 의미 관계로 인해 부정문으로 나타난 문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7) a. I had been pushing my staff to finish a number of projects under difficult deadlines, **and** we were all feeling the stress.
(RD 101집, p.100)

b. 나는 수많은 계획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끝마치라고 부하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RD 101집, p.100)

(38) a. In two days when they came out upon a road he set the bag down and sat bent over with his arms crossed at his chest and coughed till he could cough no more. Two more

days and they may have traveled ten miles. (Road, p.276)

- b. 도로에 나선지 이들이 되었을 때 남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더니 두 팔을 엇갈려 가슴을 안고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이 날 때까지 기침을 했다. 이들이 더 지났지만 15km밖에 가지 못 했다. (로드, p.312)

(37a)는 등위접속사 “and”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문장이 원인으로 뒷문장이 그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서 이런 의미 관계로 인해 번역시 부정문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본다. 즉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 모두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8b)는 이들 동안 걸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걸었어야 했는데 남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못 걸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긍정문으로 나타내지 않고 부정극어 “~밖에”와 부정어가 결합하여 부정문이 되었다. (38b)는 즉 and의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and가 “~지만”으로 해석되었다. 두 예문 모두 부정극어 “~밖에”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의미상으로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주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나타낸다. 부사와 조동사가 나타난 문장에서 부정극어들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부사와 조동사로 인해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2.2.4 부사와 조동사 구문

부사와 조동사에 의해 부정문으로 나타난 경우를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영어 부사가 부정극어로 번역되면서 부정문이 된 경우를 살펴보자.

- (39) a. They were partly screened by the ruins of the privet but he knew they had minutes **at most** and maybe no minutes at all. (Road, p.111)
- b. 쥐똥나무 울타리의 잔해가 그들을 약간 가려주었지만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몇 분**밖에** 여유가 **없**었다. 아니, 전혀 여유가 없을지도 몰랐다. (로드, p.128)
- (40) a. "Joshua," he said, "We're out. One, two rounds per men **at the most**. Some of the men have nothing at all." (Gift, p.133)
- b. "대령님,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병사 당 일제사격 한 두 번할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아예 한 발도 없습니다." (선물, p.132)

위의 예문 모두 부사 “at (the) most”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많아 봐야, 기껏해야”등의 의미는 지닌다. 즉 여기에 부정극어 “밖에”가 사용되면서 “몇 분 말고는, 한 두 번할 정도 이외에는”의 의미를 가지면서 부정문이 되었다.

영어에서 서법조동사(modal auxiliary)는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 하는데 “may, can, need, must, will” 등의 조동사는 “허가, 능력, 의무, 의지” 등 화자나 청자의 감정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번역의 변조가 필요할 때가 있다(김세정 2008: 59). 조동사를 번역할 때 부정 표현을 이용한 강조 표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41) a. ... and so far snow was only a few inches deep but if it got

much deeper they **would have to** leave the cart. (Road, p.30)

b. 그래도 아직까지는 눈이 10센티미터도 쌓이지 않았다. 그러나 더 많이 쌓이면 카트를 두고 갈 수 **밖에** 없었다. (로드, p.37)

(42) a. The hot black mastic sucking at their shoes and stretching in thin bands as they stepped. They stopped. We'll **have to** wait, he said. (Road, p.48)

b. 뜨겁고 검은 회반죽 같은 것이 그들의 신발을 빨아들이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기다릴 수 **밖에** 없겠구나. (로드, p.58)

(41a)는 조동사 would have to, (42a)는 will have to 가 쓰였는데 긍정형으로 쓰지 않고 "-수밖에 없다"인 부정형으로 나타났다. 부정극어 "밖에"는 단어 자체에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형과 함께 쓰이면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41b)는 눈이 많이 쌓이면 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트를 들고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을 의미한다. (42b) 또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이중부정에 관해 살펴보자.

3.2.2.5 이중부정

이중부정(double negation)이란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부정사가 나타나는 문장으로서 이러한 문장은 부정이 거듭되었음으로 문장전체의 의미는 다시 긍정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영어 긍정문을 한국어로 번역시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원문의 내용을 보다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예문을 보자.

(43) a. David was **amazed** at the self-control that Anne seemed to possess. (Gift, p.197)

b. 데이비드는 안네의 자제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p.196)

(43b)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중부정을 사용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도의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위의 예문과 긍정문인 “데이비드는 안네의 자제력에 놀랐다”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므로 긍정을 표현한다는 건 사실이다. 긍정문으로 표현됨에도 이중부정을 사용한 이유는 긍정문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화자의 감정의 정도를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효과를 가지는 부정문의 한 형식으로서 단순한 긍정적 표현보다는 색다른 느낌을 드러내고 강조의 효과를 낸다(서정수 1994). 그렇다고 이중부정이 모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점심을 안 먹진 않았다”의 내재적 의미는 “그녀는 점심을 먹진 먹었으나 별로 내키지 않았다” 혹은 “입맛이 없어서 조금 밖에 못 먹었다”로 가능하며 “그녀는 점심을 먹었다”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조금 약화된 긍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Jespersen(1987: 451)는 두 개의 부정어가 동일 개념이나 동일 단어에 관여되어 있을 때 결과는 변함없이 긍정이나 두 개의 부정어 not uncommon(흔하지 않은 - 흔한)은 단일언어 common과 똑같은 결과가 되도록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긴 표현이 약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심리적인 이

유를 청자의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주저함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3.2.2.6 기타(의문문)

국어의 부정문은 문장의 서술 방식 중 가장 일차적인 하위구분의 한 종류로써 긍정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문도 어떠한 어말어미와 통합되느냐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하위 구분될 수 있음을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정문은 긍정문과는 달리 의문문과 관련해서 “단순한 의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44) a. He started up the stairs but the boy pulled at his sleeve.

Can we wait a while?

...

There's no one here, the man said.

Okay.

Are you still scared?

Yes. (Road, p.204)

b. 남자가 층계를 오르기 시작하자 소년이 소매를 잡아 당겼다.

좀 기다리면 안돼요?

...

여긴 아무도 없어.

네.

아직도 무섭니?

무서워요. (로드, p.232)

위의 예문은 “좀 기다려도 돼요?”의 긍정문을 쓰기 보다는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두려운 심정을 표현하며 간접적으로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도전달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의 예문은 조건문(~면)을 사용한 의문문으로써 김미형(2000)에 의하면 이를 완곡 표현의 한 방식인 가정표현으로써 요청의 경우에 단도직입적인 요청의 어감을 없애고 상대방이 곤란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또한 우리 말은 상대방을 중시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며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나타낼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일치 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데 주의를 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 즉, “기다리고 싶다”를 함축적 의미로 가지면서 제안 혹은 요청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또 다른 예문을 보자.

(45) a. 엄마 초콜릿 먹어도 돼요?

b. 엄마 초콜릿 먹으면 안돼요? (김선경 · 권순희 2005)

(45a)의 질문은 긍정의문문이고 (45b)의 질문은 부정의문문에 해당하는데 아동이 치아 건강 때문에 초콜릿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엄마에게 질문하는 유형이다. 두 예문 모두 의미적으로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써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전제는 동일하나, 화자의 내면적 의도 측면에선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45a)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45b)는 평소에 초콜릿을 못 먹게 하는 엄마가 이번에는 허락해 주실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엄마가 부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엄마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의문문으로 질문을 했을 경우 화자 입장에서는 청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과 요청의 의미 이외에도 여러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46) a. "Do you have anything written that you are to give me?"

David asked.

...

"I do. I had almost forgotten." (Gift, p.127)

b. "나한테 주려고 써둔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있어요. 깜빡 잊고 있었습시다." (하루, p.126)

(47) a. Would he ever see Ellen again? Or his daughter?

Sweet Jenny. What were they thinking now? **Were they scared?** Happy?(Gift, p.147)

b. 엘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예쁜 딸, 제니는?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겁에 질려 있지는 않을까? 행복하게 잘 지낼까? (하루, p.146)

(46b)는 청자가 화자 자신을 위해 써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발화로써 부정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인지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47b)는 자신의 의견에 확실성이 없음을 나타내

며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발화이다. 의문문은 무엇인가에 의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정법이 더해지면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긴다. 또한 의문 표현이 질문 이외의 언어 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요청의 기능으로 인해서 표현의 간접성을 갖게 된다. 즉 표면적인 정보 요청의 기능 외에 단언의 명제 내용을 함축의미로 갖거나 제안 혹은 요청 등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우회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 혹은 배려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담화에서 담화자 상호간의 의사전달에 있어 직접적이고 간명한 정보전달의 효율성보다는 의도적 모호성을 지향함으로써 상황을 완화시키고 담화자 상호간의 체면보호를 의도할 때가 있다. 따라서 의문표현은 주된 기능인 정보추구와 아울러 함축 의미를 통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물음 이외의 간접적인 행위도 수행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정 의문 표현은 표현된 언어형식과 그것을 사용하는 화자, 청자를 포함한 맥락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은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 부정문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3.3 부연설명

원문에서는 없던 내용이 번역문에서 첨가된 경우인데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48) a. There are people there. **They were just hiding.** (Road, p.85)

b. 사람들이 있어. 숨어있어서 안 보일 뿐이야. (로드, p.99)

(49) a. He tried to push the lids up off the jars with his thumbs

but they were on too tight. (Road, p.209)

- b. 남자는 엄지손가락으로 뚜껑을 위로 밀어 열어보려 했으나
너무 **꼭 닫혀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로드, p.238)

(50) a. In reality, it's likely that **the U.S, admitted merely it's
'partial'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RD 101집, p.70)

- b. 그러나 사실 그 표현은, 미국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RD 101집, p.71)

이 예문들 또한 한국어의 상황중심 표현의 특징으로 인해 명료성을 나타내기 위해 생긴 부정문으로써 (48b)는 그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이 안보임을 문장에 추가하여 설명했다. (49b) 또한 뚜껑이 너무 닫혀있어서 그 결과 남자가 뚜껑을 열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50b)는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 문장은 원문에서는 없던 문장이 생겨난 것으로써 앞의 문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문장이라 할 수 있겠다. 앞 절에 있는 내용과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 시 부정문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예문들 또한 한국어로 번역시 부정표현으로 번역된다고 해서 부정문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보충 설명에 부정표현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이 부정문으로써 부정 의미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결론

영한병렬자료에서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문장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반의어와 유의어,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인한 부정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총 141개 문장 중에서 반의어는 67개(47.5%) 문장, 유의어는 49개(34.8%)의 문장이 나타났으며 부연설명은 25개(17.7%)문장이 나타났다.

반의어는 원문에 있는 어휘의 반대의미를 지닌 어휘로 번역되고 여기에 부정사가 결합되어 부정문을 나타낸 경우를 말한다. 품사에 따라서 분류한 결과 총 67개의 반의어 문장 중에서 형용사의 반의어를 사용하여 부정한 경우가 30개(44.8%), 동사는 26개(38.8%), 부사는 8개(11.9%), 전치사는 3개(4.5%)로 나타났다. 번역시 원문의 품사 그대로 번역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품사변화는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어순과 서로 대응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반의어를 사용한 예를 들면 remember “기억하다”의 반의어인 “잊다”와 부정어를 사용하여 부정문으로 표현한 경우로써 “잊지 못하다”로 번역이 되었다. 이 경우는 반의어를 다시 부정했기 때문에 비록 문장 형태가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긴 했으나 원문의 긍정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반의어를 사용하여 이를 부정한 이유는 원문과 동일한 긍정문으로 번역했을 때보다 반의어를 사용하여 부정했을 때 화자의 의도를 좀 더 확실히, 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문장 의미의 모호함을 표현할 수 있었다.

유의어는 본래의 어휘에 부정어만 첨부된 경우로써 표면상으로는 원문의 정 반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원문과 같은 의미를 지녀야 하는 번역물으로써 정말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나 규칙,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크게 문장형태가 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는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문장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이고 완곡적인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었다.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주인 영어에 반해 한국어는 직접적인 의사표현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적인 의사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부정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며 내재적인 의미는 긍정을 의미했다. 후자에서는 명료화로 인한 번역, 관계절 구문, 접속 구문, 부사와 조동사 구문, 이중부정 그리고 기타(의문문)가 있었다. 먼저 명료화로 인한 구문 번역과 관계절 구문에서는 한국어의 상황 중심적 표현으로 인해 명료성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문으로 나타난 경우였다. 접속 구문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등위접속사가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대조하면서 부정문이 된 경우였다. 부사와 조동사 구문에서는 번역시 부사와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들이 부정극어로 해석되면서 부정어와 결합하여 부정문을 형성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이중부정은 거듭 부정을 했기 때문에 반의어와 동일하게 긍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나 긍정문보다 이중부정문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긍정적 표현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기타에는 의문문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히 부정의문문은 화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의문이 아니라 함축 의미를 통한 정보 전달을 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문장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했다. 구문변화로 인한 부정문 역시 한국어의 언어표현의 특성상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로서 긍정의 의미를 지니나 긍정으로 표현했을 때 보다 부정문으로 표현했을 때 보다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연설명으로 부정문을 표현한 문장은 한국어의 상황 중심

적 표현과 더 나은 이해도를 위해 원문에 없던 말이 추가로 생겨난 것이므로 역시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이나 의미적으로 부정을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방식과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 번역시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번역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언어권의 표현과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원천텍스트의 의미와 의도를 반영하면서 이에 가장 가까운 목표언어권의 언어 체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번역을 해야 한다.



영한 병렬언어자료

강주헌 (역). 2008.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서울: (주)세종서적.

정영목 (역). 2008. 『로드』. 파주: 문학동네.

Andrews, A. 2008. *The Traveler's Gift*. 서울: (주)세종서적.

McCarthy, C. 2006. *The Road*. New York: Vintage Books.

Reader's Digest 101집. 2009. 『영한대역 리더스다이제스트 제 101집』.

서울: (주)다산잡지 BU.



참고문헌

- 구종남. 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회』 38, 5-27.
- 김미형. 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국학회』 7, 27-63.
- 김선겸, 권순희. 2005. 부정의문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분석. 『국어교육학연구』 24, 161-187.
- 김세정. 2008. 영한 번역에 나타난 부정 표현의 변조. 『번역학연구』 9(2), 45-64.
- 남기심, 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주)탐출판사.
- 박영준. 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박정규. 2002. 『국어부정문의 체계적 연구』.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 뿌리 깊은 나무.
- 시정곤. 1997.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49-78.
- 윤평현. 2008. 『국어의미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근희.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영옥. 2004.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91-111.
- 이용해. 2006. 『문화심리와 언어의식』. 서울: 도서출판 역락.
- Austin, J. D.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lac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asil Blackwell.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s*

on Japanese Cul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85-326.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이환목, 이석무 (역). 1987. 『문법철학』 서울: 한신문화사)

Murphy, M. N. 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my, L. 2001.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ass.: MIT Press.

Talmy, L. 2001.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ss.: MIT Press.

